

 재정경제부	보도참고자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
	보도일시	2006. 7. 7(금) 09:30부터	
생 산 일	2006. 7. 7	생산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
담당과장	유광열(T:02-2150-2210)	담 당 자	강부성(T:02-2150-2211)

제목: '06.7. 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

□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7. 7일(금) 07:30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

○ 북한 미사일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

<별첨> 「북한 미사일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점검」

○ 「운송업 수급불균형 해소방안」 과 「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」 을 논의

* 「운송업 수급불균형 해소방안」 은 추후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· 발표할 예정

** 「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」 은 혁신도시별로 도시규모, 지구계 등을 확정하는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될 7월 이후 혁신도시별로 기본구상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

【참고】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개요

○ 일시·장소 : 06. 7. 7(금) 07:30~, 정부중앙청사 2층 국무위원식당

○ 참석 : 총 14명

- 경제부총리(주재), 정통부·환경부·여성가족부 장관, 교육부·문화부·산자부·노동부·건교부 차관, 국조실 정책차장, 국정홍보처 차장, 공정위 부위원장, 금감위 부위원장, 농림부 차관보

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

북한 미사일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점검

2006. 7. 7

국제금융센터

《 목 차 》

1. 국내금융시장 동향 1

2. 국제금융시장 동향 1

3. 해외 반응 2

4. 향후 전망 4

* 붙임 5

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점검

【국제금융센터】

1. 국내금융시장 동향

- 7/5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금융시장은 휴장이었으며, 일본 및 국내금융시장에 첫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
-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국내금융시장은 주가 하락, 환율 상승 등 약세로 출발하였으나 곧 회복되었으며, 7/6일의 금융시장 약세는 미국 등 국제금융시장과의 동조화된 측면이 크는 등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음
- 다만,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,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는 존재

	7월 4일	7월 5일	7월 6일	전일대비
▪ 코스피지수	1,285.92	1,279.85	1263.96	△1.2%
▪ 원/달러 환율	943.4 원	946.7 원	949.5 원	+0.3%
▪ 국고채 금리(3년)	4.89%	4.85%	4.85%	-

2. 국제금융시장 동향

- 7/5 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하락, 엔화 약세, 금 가격 상승 등 전반적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음

7/6일 추가적인 금융시장 약세는 北 미사일 발사 이외에도 美 금리인상 우려, 이란 핵이슈, 유가 상승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
- **주가** :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으나 이는 北 미사일 소식과 함께 美 경제지표의 호조에 따른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것에 기인
 - 미국($\Delta 0.7\%$), 영국($\Delta 1.0\%$), 독일($\Delta 1.6\%$), 일본($\Delta 1.2\%$) 등 1% 내외 하락
 - 삼성전자, 국민은행 등 해외 DR은 국내주가 하락 영향으로 1~4% 하락
- **환율** : 달러화는 투자자 안전자산 선호 및 美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강세
 - 엔화는 북 미사일 발사의 직접 영향을 받는 통화로 인식되며 약세 시현
 - 원화는 별다른 동요없이 엔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7/6일 949.5 원으로 마감 (7/5~6일 이틀 동안 6.1 원 상승, +0.65%)
- **금리** : 美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로 장단기금리는 소폭 상승
 - 美 연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추가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 확산
 - 외평채 가산금리는 장중 등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평균적으로 82bp (2014년 만기) 수준으로 별 움직임이 없었으며 향후 사태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
- **유가** : 北 미사일 발사, 이란의 EU와의 핵 협상 연기 발표, 美 휘발유 재고 감소 등으로 큰 폭 상승하며 한때 사상최고치인 75.4 달러까지 상승(WTI 기준)

3. 해외 반응

- **해외투자자** : 대체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, 일부에서는 北 미사일 추가 발사나 대북 경제제재 추진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

- 대부분 해외투자기관들은 ▲ 과거 북한 이슈 발생시 금융시장 영향이 적었던 점 ▲ 금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실상 실패한 점 ▲ 미사일 발사가 예견되었던 점 등을 들어 전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 - ▶ 경제 펀더멘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기존의 투자전략에 변화가 없을 것(Goldman Sachs, Credit Agricole, Calyon 등)
 - ▶ 월가의 주요 인사들도 “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한도 축소 계획이 없다”, “한국 투자자들이 침착한 모습을 유지한 점에 안도한다”라는 반응
- 일부에서는 주요국들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예상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음(Merrill Lynch, Barclays 등)

■ **신용평가사** : 이번 사태로 즉각적인 국가신용등급 조정은 없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, 최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해 왔던 시각이 다소 변화될 가능성은 있음

- **Fitch** :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균형을 흐트러뜨리고 나아가 6자회담에 차질을 줘 한국의 신용등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
 - ▶ 최근 상황 변화가 신용등급 변화로 연결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반응, 특히 6자회담 참여국의 반응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예정
- **S&P** : 현 시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. 그러나 추가적인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
- **Moody's** : 북한과의 긴장은 여전히 한국 신용등급 결정의 취약점임. 한국 신용등급은 경제 펀더멘털과 북한으로 야기되는 안보위협에 증감에 따라 결정될 것임

4. 향후 전망

-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하게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음. 향후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/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
 - 7/6일 국제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은 북한 미사일 사태 뿐만 아니라 美 추가 금리인상과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에도 기인
-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, 아직 UN 안보리의 구체적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사태 진전을 예단하기 어려움
 - 만약 美·日 등 관련 당사국들의 대북 금융제재나 경제제재가 가시화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강경조치가 잇따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

【붙임】

<표 1> 국제금융시장 추이

	구분	7/4	7/5	7/6	전일 대비
환율	엔/달러	114.82	115.73	115.57	-0.14%
	원/달러	943.4	946.7	949.5	+0.30%
주가	다우지수	휴장	11151	-	-0.66%
	코스피지수	1,285.92	1,279.85	1263.96	-1.24%
	외국인 순매수(억원)	514	△208	△772	△564
금리	미 국채금리(10년)	5.15%	5.22%	-	+7bp
	외평채 가산금리(bp)	82	82	82	-bp
유가	WTI	휴장	75.19	-	+1.70%
	Dubai	68.50	68.00	69.03	+1.51%
금	금(현물)	620.2	628.2	626.6	-0.25%

* 자료: Reuters, Bloomberg